

## 112. 종교적인 히브리 관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 너희들은 새로운 포도주 가족부대야...

2015.08.18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하트드웰러스 여러분,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은 오늘 밤 허공에 떠있는 걱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메시지로 저희를 축복해주셨어요.

예전에 이슬람교도였던 시청자 중 한분이 매우 흥분되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클레어, 에스겔 그리고 캐롤 자매님.. 여러분이 얼마전에 ISIS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셨던 영상을 올리신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방금 이란과 이슬람 국가들에서 모든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목격한 한 남성의 영상을 보았고, 심지어 몇몇 최악의 사람들 까지도 감동을 받았어요. 무슬림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고 있으며, 그들의 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가는 작은 사람들의 믿음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요. 여러분의 사역은 진짜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매우 정확해요.”

오 주님, 저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나도 알아.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나는 9월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나만의 방식이 있어. ISIS의 타격을 입은 이란과 다른 국가들에서 부흥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거야. 나는 너희들 모두가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바래. 천국에서는 너희들이 기뻐할 달콤한 열매가 많이 있어.

너희들은 비록 그곳에서 수천키로 떨어져 있지만 그 수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어느정도의 부흥을 경험할 거야. 하지만 미국은 그대로 있을 거야.

(클레어) 하지만 주님, 경제 붕괴는요?

주님께서서는 고개를 돌리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예수님) 내가 너에게 경제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어?

(클레어) 아니요 주님.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약에 근거하여 가정해. 나는 구약의 성취이고 지금은 새로운 시대야. 이 두가지를 합치는 것은 영리하고 지혜로운것 같지만 내가 새 포도주를 낚은 가족 부대에 담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하고 있어?

(클레어) 주님, 솔직히 저는 지금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하듯이 유대 관습을 존중하지 않는것에 대해 제가 후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나는 모든 관습의 이행자야. 나를 존중해라. 그러면 다시는 종교에 휘말리지 않고 내가 존중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존중할 거야. 새로운 가족부대는 사용되어진 적이 없어. 이것은 오래된 포도주로 더럽혀지지 않았고, 오래된 포도주의 맛이 없어. 이것은 완전하게 새로워. 이전에 사용한 얼룩이 없으며 발효과정으로 유연하고 잘 늘어나. 너희들 모두는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가족부대야. 내가 새로운 관습의 영감으로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였으니 다시 히브리인의 종교적인 관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만약 너희들이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면 내가 제정한 관습을 존중해줘라. 율법과 고대 관습에 대한 지식은 특정한 영적 자만심, 종교적인 영, 바리새인의 영으로 이끌어. 나는 너희들을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었어.

이해하겠어 클레어? 사람은 규칙과 규정에서 안전을 찾아. 그들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에서 성취감을 느껴. 하지만 그것은 나의 방식이 아니야. 나는 나와의 일대일 관계에서만 안전하게 쉬기를 원해. 오래된 종교관습은 아름답지만 구속력이 있어. 나는 너희들을 예전 방식의 족쇄에서 풀어주려고 갔었어. 여러번 그들은 자선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멈췄어. 내자신이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어? 새로운 가족부대, 새 천. 오, 나는 나의 자녀들이 그들 자신의 사고방식을 버리기를 바래.

나와의 관계를 성취할 때까지 목말라하고 간구하는 것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쉬워. 너희들의 양심을 매일 살피고, 매일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는 것. 율법을 지키면 공허하고 자만심을 가질 기회가 가득한 만족을 얻게되. 나는 일부러 그것에서 멀어졌어. 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조상들이 아니라 나를 따라라.

나는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것에 지쳤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저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헛된 가정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어. 아마도 9월이 지나고, 11월이 지나고, 나는 생일 선물을 받게 될지도 몰라. 나는 옛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이미 죽었다고 선언한 것을 기리기 위해 그들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을 나의 백성들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제발, 이것을 내가 태어난 날짜를 놓고 다투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 이것이 대중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해야해. 나의 백성들아, 주의를 기울여라. 종교에 얽매이지 말아라. 내가 바리새인의 상자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바리새인과 나는 오래전에 머리를 서로 맞대고 한번도 화해한 적이 없어. 나는 그들의 모든 방식을 존중하지 않았어. 나는 그들이 만든 많은 인간의 규칙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였어. 내가 이 말을 하였을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십일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주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를 사랑하여라. 너희들도 서로를 사랑해야 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들인 줄 알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율법을 지켜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게 해라.”

율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너희들은 나의 죽음으로 세례를 받았어. 내가 죄와 죽음의 율법에서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례를 통하여 나와 함께 묻히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어.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나는 이것들에서 너희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까지 나를 찾는 신실함으로 너희들을 부르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맺기 바로 직전에 있어. 나는 너희들이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 튜닝시키고 있어. 나는 정기적으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고 너희들 중 일부는 나의 목소리를 인지하기 시작하였어. 너희들은 천둥 소리를 찾고 있어? 내가 부드러운 바람으로 오지 않았어? 오, 너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듣고 있지만 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이것을 끝낼 거야. 너희들은 나를 알아볼 것이고 우리는 함께 친숙하게 대화할 거야. 좀만 더 참아라. 너희들은 돌파구에 정말 가까워졌어.